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설악산 오현스님 얘기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보도를 통해 그의 동안거 해제 법문을 듣게 되었다. 그 법문이 좋아 그로부터 소개하고 넘어가고 싶다. ‘20여 년 전 한 염장이를 만났어. 늙수그레한 염감이 시신을 볼보는데 그런 지국정성이 없는 거야. 40년 염을 했더니, 시신을 보면 그 살아온 인생이 보인대. 죽은 이가 하고 싶어하는 말도 다 알아들을 수 있대. 염을 할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마음 편하고 정성을 다 한다는 거야. 자기를 위한 일이지 시신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참 부끄러웠어. 이 사람 얘기가 대장경이구나. 생로병사, 재행무상, 화엄경, 법화경, 조사여록이 그 삶에 다 들어있어...’

설악산 신흉사 조설 조오현 스님은 나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다. 그는 70~80년대 쓰기는 수배자를 절집에 숨기기도 했다. 그는 선승이요, 시인이다. 그의 시에는 ‘이 뒷고‘ 화두를 참구하는 구도자의 모습이 배어있다. 예컨대, ‘내가 나를 바라보니’라는 시가 그렇다. “무금선원에 앉아/ 내가 나를 바라보니/ 기는 벌레 한 마리/ 몸을 꾠다 오그렸다가/ 온갖 것 깎아먹으며/ 배설하고/ 알을 슬기도 한다”

몇 년 전 우연히 않게 그와 신경림 시인과의 대답집 ‘열흘간의 만남’(아름다운 인연,

2004)를 읽은 적이 있었다. 다양한 화제로 이 책은 내게 불교를 비롯하여 실로 많은 것을 깨우쳐 주었다. 그 가운데, 음식에 대한 가르침이라 할 오관계(五觀屬)가 불가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들어 알게 되었다.

이 음식에 따른 공력을 생각하면(詳功多少量彼來處)

덕행이 부족한 나는 밭기 가 송구하네

더 없는 경구이다 싶어, 나는 이 글을 적어 가지고 다니며 진정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되는 집에 고마움의 표시로 남겨놓고 오곤 한다. 음식이 맛있는 것은 필경 그만 큼의 공덕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불가의 공양법은 수행과 이어져 있다. 음식을 받을 때는 아래 먹을 만큼 적당히 양을 받고, 받은 음식은 다 먹어서 남기지 않는다. 공양이 끝난 후에는 밭에 남은 음식찌꺼기까지 다 씻어서 먹는다. 이는 수행자가 깊이 탁발해서 얻은 불교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대중에게 밥을 얻은 대신 수행자는 수행을 통해 깨우치고, 그 깨우침을 대중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다.

오관계와 사찰음식의 상품화

(付己德行全缺應供)

육십섯 맛있는 것만 먹으려 하지 않고
(防心離過食等爲宗)

오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약으로 알고
(正思良藥爲療形枯)

마침내 도를 얻기 위해 이 음식을 먹으라(爲成道業應受此食)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는 글로 이만한 것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금액이 1년에 20조원을 헤아릴 만큼, 음식에 대한 외경과 철제력을 잃고 있는 것이 한국음식 문화의 현실이다.

오관계야말로 이러한 음식문화에 대한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불가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이런 것이다. 옛날 어떤 수행자가 어느 절에 큰스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중이었다. 수행자는 큰절 입구까지 와서 잠시 개울가에 앉아 세수를 하고 힘을 썼다.

그런데 절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물에 놓나물 한 개가 둥둥 떠내려오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이 절에 훌륭한 고승이 있다기에 찾아왔더니 그 소문은 거짓이었다’면서 밭길을 돌렸다. 그때 절 쪽에서 한 행자가 뛰어내려오면서 저기 떠내려가는 놓나물 좀 건져달라고 소리를 치는 게 아닌가. 수행자는 역시 큰스님이 계시는

곳은 다르다면서 밭길을 돌려 큰스님 밑으로 갔다.

초발심자경문에도 ‘너희가 배가 고프거든 산에 있는 나무껍질과 풀잎, 나무열매를 먹어라. 그것도 배불리 먹지 말고 주린 배를 위로하라’는 말이 있다. 불가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먹는 것이라 생각하고, 단순히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공양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이어져 있음을 깨닫는 계기로 삼는다고 한다.

그것이 석가 아래 불가의 아름다운 전통인 것이다. 우리네 사찰음식은 직접 담근 장류와 세 땅, 제철에 난 채소, 그리고 정성을 다한 조리법으로 우선 정갈하고 그 맛이 담백하다. 사찰음식에는 공양에 담긴 생명의 가치와 겸박함, 그리고 수행정신이 담겨있다.

그런 사찰음식이 상품화, 고급음식으로 둔갑하고 있다. 비싼 것은 1인분에 5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한다. 이런 고급 코스 요리가 사찰음식으로 알려진다면, 절에서 모든 스님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게 될 것이다. 성철스님은 한끼에 반찬 세 가지 이상을 들지 않았다고 들었다.

최근 세계화와 한류 바람을 타고, 사찰음식을 고급요리로 개발, 뉴욕과 파리에서 선보인다는 소식도 들린다. 사찰음식이 갖는 그 아름다운 전통과 수행정신은 간 곳 없이 오직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매우 우려스럽다. <언론인>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GO 칼럼



정향자

사회적기업의 꽃을 피우자

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토대로 지역사회로 깊숙하게 스며들어 지역민의 삶에 뿌리내려 가고 있다.

우리 지역에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복지 서비스부분에서 두드러진

문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진행되고 있다. 일부 다소 성급하게 진행된 경향도 있지만 최근에는 지역과 함께하는 밀착형 사회적기업이 강조되면서 지역의 색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12년부터는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던 사회적기업의 거의 모든 지원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게 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갖춰 꾸준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기업으로 비전을 세우고 꽃을 피워 내기를 기원한다.

자체의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더더욱 필요하다.

이제는 시민사회에 자발적 참여로 더욱 성숙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자원과 정신을 결합하여 물질과 생산성만으로 대변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는 동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토대는 정부주도형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시간의 흐르고 시민사회에 인식이 바뀌면서 지역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기업으로 변모를 꾀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기업으로 비전을 세우고 꽃을 피워 내기를 기원한다.

<광주권역 사회적기업협의회>

무한경쟁의 시대에 ‘착한소비’로 상징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기업은 이제 소수의 관심사를 벗어나 보편적 가치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행·재정지원과 시민 사회와의 결합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해가

기고



심정보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교통수단

시철도 1호선의 효율적 운영과 외곽 신도시를 연결하는 2호선 건설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간선망을 완성하고, 여기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자전거를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은 시민 편의성과 재정부담 최소화, 최신기술 도입, 도시미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건설방식 등을 조속히 확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활자전거 이용을 통해 교통문제 및 환경문제 해결의 둘과구를 찾고 있다. 이는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을 우선시하는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이미 성공적인 추진사례가 보급되고 있다. 각국의 자전거 보유율은 일본 57%, 독일 74%, 네덜란드 75%이며,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일본 25%, 독일 26%, 네덜란드 43%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보유율 15%, 수송분담률 2.5%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전거 교통, 특히 생활자전거는 여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자동차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으며, 주차공간 부족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또, 무공해 교통수단이며, 소음도 거의 없다. 100cal의 에너지를 사용하면 걸어서는 1.6km, 자전거는 4.6km, 자동차는 80m를 이동할 수 있다.

우리는 이처럼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교통수단을 적극 장려하여 도시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생활자전거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생활자전거 인프라, 제도, 환경 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자전거를 이용하여 집에서 어디로 가기 편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27개 노선 29km에 대한 보도턱 낮추기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 자전거도로 36.5km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올해에는 광주천

습관은 식사때 뭔가 국을 안 먹고 식사를 하 고 나면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서운한 생각이 들어 국물을 다 마신다는 것이다.

이 국물이 나트륨 과다섭취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

젊은 층도 마찬가지다. 광주국수에는 2900mg의 소금이 들어있고, 라면엔 2100mg, 불고 면엔 1800mg이 들어 있는데 이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겨 먹는 인스턴트 식품인 빵과 과자, 헌, 소시지, 피자 같은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에도 나트륨이 적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나트륨 섭

자전거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사로 설치, 노면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둘째, 목적지에서 자전거 보관·정비·환승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이용중인 자전거 보관대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광주전, 영산강 강변지역 5개소에 ‘자전거 터미널’을 구축해 일대와 수리, 안전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중이용 시설과 대중교통연계 강화를 위한 공공자전거 대여처 및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터미널, 광주역,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무인 공공자전거 운영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셋째, 시민의 생활자전거 이용을 장려하

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전거를 이용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백화점,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입장권 할인, 포인트 적립, 사은품 증정 등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확대한다. 그리고 근로자, 학생 등 교통수단을 적극 장려하여 자전거페트롤을 통한 자전거 불편하고 등을 접수한다면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된다. 더불어 향후 자전거 이용자 손해보험 가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시 교통건설국장>

성인병 발병 부르는 나트륨 섭취량 대폭 줄이자

취량은 4618mg이나 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에 비하면 2배를 넘고 미국보다는 1000mg 정도 많이 먹는 양이라 한다.

나트륨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고혈압, 뇌졸증, 골다공증 같은 성인병이나 위암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건 다 아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인남녀는 물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청소년들의 소금섭취량을 줄여주는 식습관을 길러주셔야 할 것이다.

▲남상민·광주시 광산구 소총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실체 불명 단체와 세계비엔날레 개최라니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많은 예산을 들여 ‘세계비엔날레대회’라는 국제행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재단은 정확한 조사 없이 세계재단과 세계비엔날레대회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광주재단이 밝힌 세계재단 본부와 임시사무실 등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니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디 있는가.

또 2010년부터 이 행사를 준비했지만 이와 관련한 시의 기본자료는 단 1건도 없고, 6억 원 예산도 절반 가량이 해외인사 초청 경비로 책정돼 ‘돈 주고 사람만 데려오는 행사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하지만, 2009년 설립된 세계재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국의 비엔날레를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이 있는데 문제다. 이 재단은 각국 비엔날레재단이 한 곳도 기입하지 않았으며, 거액의 예산을 들여 국제행사를 치를만한 영향력도 없다는 것이다. 일 본 등지에선 이 재단을 알지 못하는

고 부산비엔날레재단은 이름을 들어보긴 했으나 별 의미 없는 단체여서 관심밖이라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광주재단은 정확한 조사 없이 세계재단과 세계비엔날레대회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광주재단이 밝힌 세계재단 본부와 임시사무실 등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니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디 있는가.

또 2010년부터 이 행사를 준비했지만 이와 관련한 시의 기본자료는 단 1건도 없고, 6억 원 예산도 절반 가량이 해외인사 초청 경비로 책정돼 ‘돈 주고 사람만 데려오는 행사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하지만, 2009년 설립된 세계재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국의 비엔날레를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이 있는데 문제다. 이 재단은 각국 비엔날레재단이 한 곳도 기입하지 않았으며, 거액의 예산을 들여 국제행사를 치를만한 영향력도 없다는 것이다. 일 본 등지에선 이 재단을 알지 못하는

삼남매 죽음 부른 사이비 목사부부의 광신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성군 보성읍에서 교회를 운영 중인 박모(43), 조모(34·여)씨 부부가 종교에 심취해 독감에 걸린 자녀 3명을 감금한 채 수일째 굶기고 폭행해 사망케 했단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이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사이비 종교의 폐단이 추친 이런 어떤 ‘비엔날레 세계화’라는 성과주의 측면이 없지 않다. 광주시는 차제에 대회 추진 실익을 명확히 따져 예산만 날리고 국제적 망신 만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지난 1일 감기를 앓던 큰딸(10)과 각각 8살, 5살 난 아들 등 삼남매에게 “잡귀가 붙어 있으니 물아내야 한다”며 이를간 허리띠로 때리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

으로 수사 과정이 드러났다. 특히 목사 행세를 한 남편은 앤수도 받지 않았으며, 자녀가 숨진 뒤에도 “기독교 살리겠다”며 10여일간 방치했다니 말뿐이다.

이들은 성경책 잡언 24장 13~14절에 나오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울에서 구원하리라’는 구절 등에 따라 폭행해 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과거 종말론에 따른 집단 자